

## 호수

박태진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하늘을 그대로 품은 호수는  
청명한 겨울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낸다.  
칼바람이 연일 이어지면  
서서히 순백의 얼음세상으로 변신한다.

때가 되면 감히 그 호수에 발을 내딛어  
저 건너편 어딘가에 숨 쉬고 있는  
첫사랑에게로 서서히 다가간다.  
그대에게로 가는 오작교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다.



햇살이 그 환한 얼굴을 비추이면  
어김없이 호수는 그 푸르디 푸른 속내를 서서히 드러낸다.  
안개가 걷히면 호수를 사랑한 나무는 호수를 향해 굽었다.  
사랑한다면 끝내 연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호수, 첫사랑을 만나다.  
호수 같은 눈동자 호수 같은 마음 호수 같은 만남 호수 같은 그리움  
맑은 호수 위에 하늘빛 그림자가 드리우면  
한 동안은 그저 호수만 바라보아도 좋다.  
내 마음 속에 호수가 들어오도록 사색에 잠겨  
오롯이 눈 감아 보아도 좋다. 🌕

## 독자의견

River &amp; Culture

## 하천과 양수기의 추억

김석 원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치산치수를 잘하여 하천에 물이 항상 흐르고, 건천이 많이 줄어든 지금은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에까지 성능 좋은 농기계가 물을 퍼낸다. 모터에 스위치만 넣으면 양수기가 물을 품어 올려 호스를 타고 팔팔팔팔 논밭에 물을 적셔주니 하천 하나만 잘 가꾸어도 농사걱정 없는 시절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어렸을 적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하천관리도 부실하고 천수답 논이 많아서 농사짓기 참 어려웠다. 천수답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지 않을 경우 절대 농사지을 수 없는 그런 논이다. 물을 대야 모판도 만들고, 다지란 모를 심어 벼도 키우겠지만 양수기가 흔치 않았던 그 시절엔 물을 댈 길이 없어 하늘만 바라보던 천수답이 아주 많았다.

그러던 것이 새마을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킨 나라님 덕분에 슬슬 천수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기억하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농촌의 모든 냇물과 도랑에는 다리를 놓고, 천수답 논에는 반드시 양수기를 공급해서 물을 대게 했다. 그 덕분에 내고향 마을에도 정부에서 내 준 양수기가 두어 대 들어와 천수답에 물을 댈 수 있게 됐다.

요즘의 양수기는 모터와 양수펌프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최신식 일체형이지만 그때 정부에서 내준 양수기는 지금과 같은 그런 최신 양수기는 아니었다. 그때는 경운기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퍼올리는 방식이었다.

그래도 어쨌거나 양수기가 지원이 되자 경운기를 가진 사

람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천수답 논을 가진 농민들이 너도나도 경운기에 품삯을 주고 양수기를 가져다가 연결해 논에 물을 대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었다.

‘탕탕탕탕....’

양수기에 연결된 경운기 엔진이 힘차게 기계운동을 시작하면 논 옆을 지나는 하천의 물속에 드리워진 굵은 고무호스가 물을 빨아들여 논으로 뱉어주기 시작한다.

팔팔팔팔.... 칠칠칠칠처처적... 팔팔팔팔.... 칠칠칠칠처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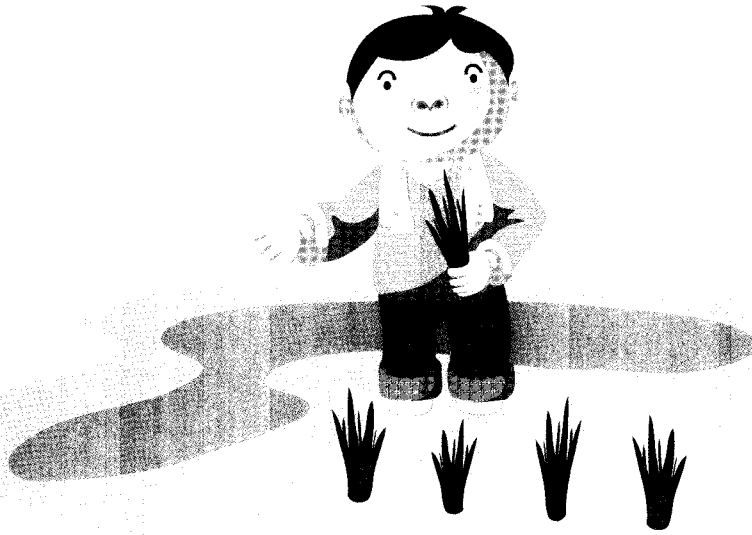
신나고 경쾌한 물소리. 그동안 물을 대지 못해 한밭이 심한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햇볕에 그을려 쩍쩍 갈라지던 논이 양수기가 뿜어주는 물을 머금고 다시금 생명의 옥토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경운기는 성능이 대단했다. 길보기에는 시끄럽고 요란한 조그만 디젤 원동기지만, 도랑에서 멀리 떨어진 논에 물을 대는 일도 거뜬히 해냈다. 즉 100m가 넘는 먼 거리 논에도 길다란 고무호스를 연결해 물을 퍼 주었다.

경운기의 힘에 의해 양수기가 물을 퍼 논에 대는 찰나, 어떤 농민들은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팔팔팔 쏟아져 논으로 들어가는 물에 발을 담근 채 흐뭇한 표정으로 논을 바라보는 농민들 얼굴에는 풍년을 기약하는 기쁨이 넘쳐났고, 경운기와 양수기를 가동하는 농민 역시 힘차게 움직이는 경운기 옆에서 흐뭇한 마음으로 담배를 피워 물며 여유를 즐겼다.

서너 마지기 크기의 논에 물을 대는 시간은 대략 네댓 시간쯤 걸렸다. 그리고 한 농가의 일이 끝나면 경운기 주인은 다시 양수기를 철거해 경운기 집간에 싣고 물대기를 학수고 대하는 다른 농민의 논으로 줄달음을 쳤다. 한시가 급하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해 보면 그 경운기가 참 대단한 효자 중의 효자라는 생각이 든다. 양수기로 물을 대야 하는 모내기철에는 이 경운기가 밤새 쉬지 않고 돌아갔는데 내 기억으



로는 그 경운기가 고장 한번 나지 않은 채 끄떡없이 물을 퍼 주었던 것 같다. 그 덕에 경운기 주인은 품삯의 수입도 넉넉했고, 천수답 농민들은 아무 걱정 없이 농사를 질 수 있었다.

양수기가 농촌에 들어온 뒤 생겨난 재미있는 묘미 중 하나는 마을을 지나는 하천의 물 위쪽을 막아놓고 경운기로 물을 퍼낸 뒤 고기를 잡는 일이었다. 마을 청년들이 의기투합해 도랑을 막은 뒤 대여섯 시간 동안 물을 퍼내 도랑에 물이 바짝 마를 즈음에는 그 안에 살던 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한다. 이때는 정말 물받 고기 반이었다. 바게스를 가져다가 고기를 주워담느라 정신이 없다. 메기, 가물치, 붕어, 심지어 물뱀까지 없는 게 없다. 그렇게 잡은 고기로 그날 저녁 동네사람들 모두 매운탕을 끓여 막걸리와 함께 한바탕 마을 잔치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낭만적이던 고향 마을에 최신식 농업용수 공급방식이 만들어지고, 하천의 물을 효율적으로 대기 위해 농촌마다 콘크리트로 바둑판처럼 수로를 냈다. 마을 전체의 논밭을 바둑판처럼 경지정리한 뒤 중앙집중식 농수공급시스템을 갖추고 마을을 관통하는 수로를 만들어 24시간 농업용수가 흐르도록 해 놓은 것이다. 농사짓기가 참 편리해졌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70년대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 그림기만 하다. 어릴 적 친구들이 여전히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짓고 있는 나의 고향, 여전히 마을 앞을 흐르는 그 하천, 항상 고맙고 애뜻하고 정겹다. ●